

‘오픈 이노베이션’ 10년 ...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30개로 늘려

Innovative Brand of the Year



유한양행

유한양행(조옥제 대표이사·사진)이 '202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션 브랜드'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유한양행은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유한'의 정신이 있다. 혁신신약 개발과 신사업을 통해 인류의 행복을 위해 힘쓰고,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유한양행의 글로벌 진출은 국산 신약 비세포페말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아지티닙)가 새 장을 열었다. 지



난해 8월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는 존슨앤드존슨(J&J)의 '리브라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말)와의 병용요법으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며 국산 항암제 최초의 글로벌 1차 치료제로 등록했다. 렉라자가 FDA 승인을 받은 지 1년이 지난지만 국내에서 항암제로 FDA의 허가를 받은 혁신신약은 렉라자가 유일하다.

또 유한양행은 신약개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2015년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연구 및 개발(R&D) 파이프라인도 확보하고 있다. 올해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수는 30여개로, 2015



조옥제 유한양행 대표(왼쪽)가 지난 5월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단체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년 9개 대비 크게 증가했다. 유한양행은 투자를 통해서도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혁신 신약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K제약바이오' 성공 신화를 이끄는 대표 브랜드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

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의 지평을 넓히며,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속에서 글로벌 신약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S칼텍스 부회장(오른쪽)이 '제3회 DT Day' 행사에서 임직원들과 디지털 & AI트렌스포메이션(DAX)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유산업에 AI 기술 집속 '수익성 있는 성장' 새 장 열어

AI혁신 부문 대상



GS칼텍스(하세훈 대표·사진)가 '202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AI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GS칼텍스는 100년 기업 도약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딥 트랜스포메이션(Deep Transformation)'의 핵심 축으로 '디지털 & 인공지능(AI) 트랜스포메이션(DAX)'을 설정하고, AI 기술의 사내 확산과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GS칼텍스는 1967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정유사로,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에너지 선도 기업이다. 단일 정유 공장 기준 세계 4위 원유 정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정유·석유화학과 같은 전통 제조업에서 AI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



술 적용을 넘어 산업 운영 철학과 경쟁력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공정은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연속 운전되며, 서로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다. AI가 적용되면 방대한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 운전 조건을 제시하고,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 기존에 숙련자 경험에 의존하던 의사결정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운영체제로 전환된다.

GS칼텍스는 여수공장에 AI 기반 CCTV를 도입해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다. 또한, 고소 및 밀폐 공간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는 드론과 로봇을 활용해 작업의 안정성과 점진 효율을 높이고 있다.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내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인 'AIU'를 올해 상반기에 도입했다. 김동현 기자

‘동원GPT’ 도입 ... 디자인·생산·물류에 AI 솔루션 전면 적용

AI혁신 부문 대상



동원

동원산업(김세훈 대표이사·사진)이 '202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AI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동원그룹의 인공지능(AI) 인프라 도입과 데이터 중심의 조직 혁신, 실제 현장에서 이뤄낸 업무 방식 변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동원그룹은 그룹의 철학부터 생산·물류·유통·경영관리·ESG(환경·사회·지배구조)까지 전 영역에 AI 기술을 적용해, 미래를 이끄는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동원그룹의 AI 활용은 '동원GPT'라는 그룹 전용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임직



원 누구나 그룹 내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강화한 GPT 서비스를 구축, 전자적자원관리(ERP)·생산·유통·법무·ESG 등 전 분야 맞춤형 AI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동원그룹은 디자인 및 제품 개발에도 AI를 전방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AI 기반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신제품·패키지 디자인 생성과 평가, 트렌드 분석까지 한 번에 이루어져 촬영·리서치 비용을 30% 낮게 줄이고, 브랜드 경쟁력이 강화됐다. 물류 현장에서는 AI가 배송 차량 경로를 최적화해 운송 효율·납기 정확도가 높아졌고, 원양어선 및 주요 물류 거점에는 AI CCTV가 설



동원산업이 AI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KAIST와 함께한 '2025 동원 AI Competition' 행사를 열었다.

치해 추락·화재 등 사고를 실시간 감지·예방하고 있다.

동원그룹이 AI를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창업자인 김재철 명예회장의 해단 덕분이다. 김재철 명예회장은 아직 세상이 AI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전인 2019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AI 분야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AI 인재 양성과 기술 확보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김동현 기자



‘AI 거버넌스’로 신뢰성 확보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환주 은행장·사진)이 '202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션 서비스'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KB국민은행은 디지털 금융 혁신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위해 AI 거버넌스를 수립했다. AI 거버넌스란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윤리적·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말한다. KB국민은행은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체적인 AI 거버넌스 수립을 준비했다.

KB국민은행의 AI 거버넌스는 ▲AI 윤리기준 및 조직문화 ▲위험평가 프레임워크 ▲생애주기별 위험관리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등 4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다. 우선 'AI 윤리기준'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이다. 모든 임직원은 AI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AI 개발



자에게는 별도로 개발 가이드 교육을 실시해 윤리적 기준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위험평가 프레임워크'는 AI

서비스가 가진 잠재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다. AI서비스의 위험등급을 4단계로 분류하며, 높은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AI 서비스는 보다 강화된 관리방안을 적용 받는다. 허용 불가로 분류된 서비스는 도입 자체가 불가하다.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AI 서비스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만들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AI 서비스 도입에 대비해 AI 활용 사설 교육, 거부권 보장, 설명의무, 민원 및 피해구제 절차 마련 등의 대응이 AI 거버넌스에 포함됐다.

KB국민은행은 AI 거버넌스 원칙을 뒷받침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AI 윤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기구는 고위험 서비스 승인, 윤리기준 및 위험관리 정책 마련 등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의사 결정 역할을 수행한다. 한경재 기자

‘고객의 소리’를 자산으로 ... 영업 현장 중심 서비스 혁신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김성태 은행장·사진)이 '202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션 서비스'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고객 불편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수상의 핵심 배경은 IBK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이 추진한 '고객의 소리(VOC) 자산화 프로젝트'다. 기존 VOC 시스템은 단순히 청원과 불만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면 IBK는 이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데이터 기반 '고객지' 혁신 플랫폼으로 진



화했다. VOC 단순 불만·의견을 '경영 의사결정 데이터'로 고도화한 점, 영업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구조를 구축한 점,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IBK 관계자는 "고객 의견은 더 이상 처리해야 하는 과제나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전행 차원에서 VOC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직원의 서비스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현장 중심 CS교육 강화 전략은 ▲영업점장의 실제 사례 기반 콘텐츠 개발 ▲부사차별별 맞춤형 교육 체계 ▲디지털 영상 콘텐츠 확대 및 AI 기반 실시간 코칭 시스템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객경험 개선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최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에서 IBK기업은행은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기업고객 부문은 오랜 기간 지원해 온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과 충성도 높은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으며, 개인고객의 만족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 고객의 소리를 가장 중요한 경영 자원으로 삼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라는 존재 이유가 더욱 공고히 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재 기자

현장 근로자와 다양한 안전 소통 ... ‘위험 징후’ 실시간 해소

안전경영 부문 대상



KT

KT(임원규 부사장·사진)가 '202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안전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근로자 참여형 안전관리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선제적 위험예방체계 구축,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소통 구조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킨 점이 인정받은 결과다.

KT는 안전보건총괄(CSHO)을 중심으로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주요 안전보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매일 열리는 안전간담회의를 통해 그룹사와 협력사, 현장 실무까지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와 개선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단순한 회의나 절차적 운영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예산, 현장 기준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의사결정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

현장 의견 반영 체계도 강화됐다. 전국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 제도 개선 의견, 이차사고 사례 등을 논의하며, 제안된 의견은 모두 안전보건총괄의 확인과 후속조치 과정을 거친다. KT는 온라인의 시스템, KT119 신고, 사육방견의 운영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종사자가 위험 징후를 숨김없이 보



KT가 통신 공사·철도 현장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기지국 안전시설물 공동구축 업무 협약식을 열고 있다.

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체계적인 의견수렴은 지난 해 2000건이 넘는 개선 조치로 이어져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KT 안전경영의 핵심 축 중 하나인 위험성평가 역시 직원 참여 중심으로 고도화됐다. 통신·건설이 결합된 특수한 작업 환경을 반영해 43개 업무현황과

62개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최근 3년간 유해·위험요인 누락 비율을 건수는 11건만이 늘었다. 임원규 KT 안전보건총괄 부사장은 "앞으로 AI 기반 혁신과 참여 중심의 소통문화를 기반으로 중대해 '제로(0)'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재 기자

로밍 챗봇이 사람처럼 대화 ... 상담·가입·처리 시간 단축

Innovative Chatbot of the Year



LG유플러스(총병식 대표이사 사장)가 '202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노베티브 챗봇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로밍 챗봇을 도입해 고객 상담·처리·가입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상담 환경을 구축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기존 통신사 챗봇은 버튼 기반의 '물베이스' 방식으로, 질문 유형을 하나씩 눌러야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과정이 길었다. 반면 LG유플러스의 LLM 챗봇은 고객이 묻는 바를



파악해 자연어로 대화하며 필요한 절차를 즉시 안내한다. 로밍 가입 절차는 기존 10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 가입

시간이 60% 이상 단축됐다.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면서 순고객추천지수(NPS)도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 행동 분석을 바탕으로 챗봇 UI·UX도 전면 개편했다. 핵심 정보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흐름을 재정비해 불필요한 탐색 시간을 최소화했다. 서비스 출시 이후에는 고객 피드백 기반으로 지속적인 고도화도 병행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기반 고객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국내 통신업계 시 도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챗봇 서비스를 한 단계 더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 정보 제공이나 업무 처리 기능을 넘어 고객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AI 에이전트'로 발전시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서해의 LG유플러스

SV담당 상무는 "고객 불편을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집요한 고민 끝에 얻은 성과"라며 "챗봇을 사람처럼 대화하는 AI 에이전트로 고도화해 초개인화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9월부터 안전한 서비스인 '스마트패스'를 항공장과 탑승구까지 전면 확대했다. 인천국제공항 제공

여권 대신 얼굴로 탑승객 확인 디지털로 출입국 시간 확 줄여

디지털혁신 부문 대상



이동형 셀프체크인 로봇도 운영될 예정이다.

공사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공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해 사장·사진)가 '202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디지털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변화와 고객 기대 수준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3월 '디지털 대전환'을 선언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이동을 출입국 절차의 디지털 혁신이다. 공사는 2023년 T1-장기차량 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T1-T2 연결 노선까지 확장

했고, T2 확장구역에는 실내 이동로봇을 투입해 여객 이동시간을 단축했다. 또 스마트패스를 통해 얼굴만 인식하면 여권·탑승권 없이 출국장과 탑승구까지 통과할 수 있는 비대면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환승·장·탑승구까지 서비스가 확대돼 대기시간과 혼잡이 크게 줄었다. 안내로봇 '에어스타' 역시 고도화된다. 다국어 대·항공편 알람·비상 대응 기능을 탑재한 신규 모델이 도입되며, 올해 말부터는

항 운영 자체를 예측할 모델로 바뀌고 있다. CCTV 영상 분석과 IoT 센서를 활용해 대기·혼잡도를 자동 감지하고, 혼잡 정보는 포털·홈페이지·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안내와 여객의 동선 선택을 돕는다.

공사는 향후 전 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해 '예측 기반 공항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핵심 전략은 통합공항관리(TAM: Total Airport Management) 도입이다. TAM은 항공기 운항·여객동선·수하물 등 공항의 모든 데이터를 연결해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지면·혼잡 등 비정상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는 플랫폼이다. 공사는 이를 통해 정시성·안전성을 크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 측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술을 공항 전 영역에 적용해 미래형 디지털 공항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할인 코드까지 알아서 ... '하이제코' 더 똑똑해졌다

<AI 챗봇>

Innovative Chatbot of the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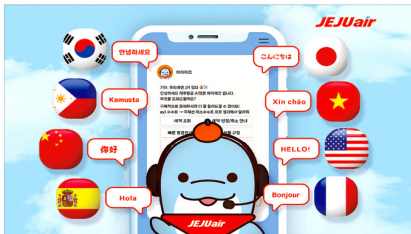


제주항공이 '202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노베티브 챗봇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2023년 국내 항공사 최초로 도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하이제코'가 항공 여행 전 과정에서 고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을 실현했다는 평가다.

하이제코의 경쟁력은 '항공업 특화' 지식 집고 있다. 항공 운임, 수하물, 공항 절차처럼 복잡한 규정과 다양한 예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은 표로 시각화해 안내한다. 최신 규정과 제주항공의 고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도록 설계해

변의 품질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하이제코는 영어·일본어·중국어 포함해 198개국 언어를 자동 지원한다. 해외 이용객도 동일한 수준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언어 장벽 해소 효과가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객센터 시스템과 연동해 운영시간에는 상담사 연결도 가능하다. AI 챗봇과 상담관 '이음'에 없는 여정도 구현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11월 '안내형 챗봇'을 넘어 실시간 정보 연동 챗봇으로 기능을 확대했다. 예약 조회, 운항 스케줄 확인, 보유 포인트·쿠폰·프로모션 안내 등을 챗봇이 직접 제공한다. 고객이 선택한 노선과 일정에 따라 사용 가능한 할인 코드를 자동 탐색해 예약 화면에 즉시 적용하는 기능은 타 항공사에서 보기 드문 차별화 요소다.



제주항공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하이제코'는 영어·일본어·중국어 포함해 총 198개국 언어로 24시간 자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LG유플러스 제공

올해 1~10월 기준 제주항공의 100명당 전화 상담 수는 4.2건으로, 도입 전 같은 기간의 6.1건 대비 31% 줄었다. 제

주항공은 향후 지식 운영 체계를 고도화해 다양한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챗봇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혜인 기자

습지 훼손 없이 송전선로 설치 ... 갯벌·해양 생태계 보호나서

한국의 해상풍력 리더



한국전력(김동철 사장·사진)이 '202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한국의 해상풍력 리더'를 수상했다.

한전은 정부 부처와 전라남도 및 환경단체와 협업해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개정안에는 해상풍력 연계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습지 보호구역 내 가장 송전선로 설치할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과 지역자치단체, 환경단체가 협업해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의 제



도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진행 중인 3기 가와트(GW) 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계기가 됐다. 전력을 육지로 송전하기 위한 결과로 중 약 3.8km가 습지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습지보전법 시행령은 습지보호구역 내에서 해저케이블 설치만 허용했다. 해저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축구장 100개 규모를 굴착해야 해 갯벌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공 송전선로 설치 방식이 습지에



한국전력은 신안 해상풍력 송전 선로 건설사업의 습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해 법안 개정을 주도했다. 한국전력 제공

직접적인 피해 없이 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좁혔다. 한전이 2022년부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유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문화를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

으로 법 개정을 완료했다. 한전의 선제적 대응은 공공기관·지자체·환경단체가 협력해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명희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부 시스템 고도화, 신규 서비스 추가 등을 통해 국민 제강형 대포 중소기업 지원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중소기업 찾아가 맞춤형 지원 민원 505건 현장에서 해결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소통 창구를 확장하는 등 홍보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강진석 이사·사진)이 '202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진공은 '찾아가는 중진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직원인 중소기업과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 기업은 국내 고용의 83%를 담당하는 만큼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지만 최근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 정보 부족, 인력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중진공이 찾아가는 중진공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다.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중진공 측 설명이다. 가법 총회와 설명회 등 기존 기업이 진행해온 행사를 최대한 활용했다. 정보 제공뿐 아니라 문제 해결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일괄 지원했다. 지남 인력 1명을 지정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육

중진공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총 65회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기업 관계자 2186명과 소통하고, 62건의 건의 사항을 들었다. 이 중 현장에서 505건을 해결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75건에 대해 지원했다. 전례 미처한 반산업단지와 강원 홍천회향센터, 여수 오천원반산업단지 등의 현장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업체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유익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행정의 혁신 모델을 정착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까지 이뤄진 점이 호평받았다. 중진공은 향후 '해결하는 중진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중진공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명희 기자

'안심전세 앱'으로 임대인 정보 한눈에 ... 사기 피해 예방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주택도시보증공사(HUG·윤명규 사장 직무대행·사진)가 '202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노베티브 서비스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2023년 2월 출시한 '안심전세 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HUG는 임대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앱을 선보였다. 앱 출시 당시 주택의 시세 정보와 위험성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수도권에 자리한 연립·다세대 주택과 50가구 미만 아파트 168만가구 등을 대상으로 했다. 3



개월 후 앱을 개선해 전국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 1252만 가구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도 추가 제공했다. 임대인 휴대전화 번호 본인 정보 조회 방식에 대해 임대인 휴대전화에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정보만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HUG는 고객 요구 사항을 반영해 앱을 개편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주요 하위면과 기능이 재배치됐다. 보증이 행 관할 센터 조회 기능을 신설하고, 심사 진행 현황 안내 화면도 구현했다. 특히 앱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앱 이용 불편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3년 2월에 출시한 안심전세 앱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다운로드 약 86만회를 달성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만점 기준 4.7점을 달성했다. 지난 10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85만9429회, 이용건수 252만4993건을 기록해 전세 계약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명희 기자

한국의경영대상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 창출과 혁신지향의 기업 문화 정착으로 산업계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에게 드리는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밝히는 경영의 등대, 시대를 이끄는 혁신의 빛이 되다

흔들림 없는 원칙과 선명한 비전으로 산업의 미래를 비추는 당신의 여정.
2025 한국의경영대상은 불확실한 시대에 방향을 제시한 당신의 탁월한 경영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비춘 혁신의 빛이 대한민국 산업을 미래로 인도합니다.



최고경영자상



ESG경영 부문 대상



AI혁신 부문 대상



Innovative Brand of the Year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AI혁신 부문 대상



AI혁신 부문 대상



안전경영 부문 대상



한국의 해상풍력 리더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Innovative Chatbot of the Year



Innovative Chatbot of the Year

본 광고는 2025 한국의경영대상 수상 기업들이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영성과와 고객가치를 창출하고자 공동으로 마련한 광고입니다.